

사회



14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대촌미곡종합처리장 앞 농로에 수확한 물벼를 실은 트럭 수십대가 수매를 기다리며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미곡처리장 벼 수매대란

2008년 RPC 통합으로 물량 쏠려

트럭들 장사진 하루종일 수매 대기

지난 2008년 출범한 광주의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이하 통합RPC)의 처리 용량이 수요량에 크게 못미쳐 날마다 벼 수매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RPC의 시설규모는 통합 이전 그대로인 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농민과 처리해야 할 수매량이 크게 늘어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 통합RPC(광주시 농업 쌀 종합 공동사업 법인)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광산구 소재 분림미곡종합처리장과 남구의 대촌미곡종합처리장 2곳에 물벼(말리지 않은 벼)

수매를 위해 광주지역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미곡종합처리장이 가공할 수 있는 미곡의 양은 각각 시간 당 5t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2곳 모두 매일 130여t의 물벼가 수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14일 광주일보가 대촌미곡종합처리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처리장 입구에는 물벼를 실은 트럭 50여대가 수매를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물벼를 수매하기까지 평균 24시간이 걸리고, 물벼를

실은 트럭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매에 따른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매 대기 트럭이 처리장 인근 대로변까지 차지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는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운전자들의 민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8년 실시한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의 부작용이라는 게 광주시 통합 RPC의 주장이다.

농림부가 광주농협 산하 2개 농협(분림, 대촌) 조합원으로부터 추수된 벼만 수매하던 분림·대촌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적자 경영을 이유로 14개 농협 조합원의 벼를 모두 수매하게 유도해 일종의 '쏟김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

이현선 광주시 통합 RPC 대표이사는 "분림·대촌미곡종합처리장은 이들 지역에서 추수된 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가공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14개 농협 조합원이 한꺼번에 이용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와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이전까지는 농민들이 가져온 벼를 수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었는데 현재는 24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처리장 인근 도로변까지 수매차량이 대기하면서 삼야시간대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분림처리장에는 500t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2개를 확충했는데, 대촌처리장은 아직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2곳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광주지역 농가는 1만여 세대에 이르며, 매일 벌어지는 '수매 대란'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광주시 통합 RPC는 보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남약 신도시 신청사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전남경찰청 간부 체포

검찰이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경찰청 간부를 체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3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경찰청 간부 A(57) 경감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무안 남약 신도시에 건설중인 전남경찰청 신청사 공사에 참여한 B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재시공 문제로 공사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유지'를 도와 달라'며 A

경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B업체는 지난 1월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다가 감리업체에 적발된 뒤 공사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전남 A경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금품 전달 경위와 규모, 전남경찰청 직원 공모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전남경찰청 신청사는 무안군 남약 신도시에 3만4000여㎡ 규모로 들어섬, 총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0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43) 김종두



납품 대가로 수익 수수 한중산단 전 대표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14일 공사 자재 납품 권한을 주는 대가로 석자재 업체에게서 수익원을 받아 행진 혐의(배임수색 등)로 기소된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전(前) 대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박씨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도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국제산업단지(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맡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대표로 있던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석자재업자인 김모씨에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태 주면 레미콘 등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서 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화 안 받는다" 내연남 집에 불질러

○~내연남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1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0·목포시 산정동)씨는 지난 13일 밤 11시15분께 목포시 산정동 A오피스텔에 사는 내연남 김모(38)씨의 집 화장실·방에 옷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쫓아갔는데, 경찰에서 "술 마시고 화집에 불을 냈다"고 진술.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별거 중 아내 성폭행 '강간죄'

검찰, 40대 기소

검찰이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40대를 강간죄로 기소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4일 별거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해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모(여·43)씨의 집에 들어가 윤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2차례에 걸쳐 윤

씨의 집에 침입해 윤씨를 폭행하고 거울 등을 깨뜨리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강간치상을 비롯, 주거 침입,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부부는 수개월간 동거기간을 거쳐 지난 7월 중순께 혼인 신고를 했으나, 20여일 뒤인 8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부부를 '정상적 부부'가 아닌 '헤어진 동거인' 관계로 판단해 최씨를 기소했다. 우리나라는 통상 부부간 강간은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 법원이 부부간 강간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구급차 잦은 사고 대책 급하다

최근 방림동 사거리서 신호위반 환자 사망

지난 12일 밤 8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사거리에서 나주 모 병원 구급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구급차로 이송중이던 임모(75)씨가 숨지고, 버스승객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구급차 충돌사고 발생하기 약 1시간 전 나주시 이창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던 중이었다.

경찰은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이날 사고가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또 임씨의 사인이 구급차 충돌사고 때문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

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급차의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대형병원으로 옮겨져던 중이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119 구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각각 7건, 11건이 발생해 이송환자와 구급대원 등 9명이 상해를 당했다. 하지만 이는 119구급차량 만을 파악한 것이어서 병원 등 구급차를 포함할 경우

전체 구급차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처럼 구급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이 구급차의 경우 속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구급차는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별다른 사고 예방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북구 견인대행업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광주시 북구에서 견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견인대행업체 대표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A견인대행업체 대표 B씨가 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또 구청 공무원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폐차된 견인차를 마쳐 정상운행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당수령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견인대행업체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2개월간 광주시로부터 사업용 화물차인 견인차(1·1.2t) 유가보조금 4517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주기자 gale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